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국제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Aid to the Church in Need Korea

믿음이 살 수 있도록

제 1호 · 2016.01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67 대승빌딩 8층 (신수동 32-2)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전화:** 02)796-6440

오늘도 안데스 산맥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수녀님

우리는 하느님만이 이 모든 실존적이고 영성적인 문제들을 없애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로하라고 요청받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
2014년 12월 7일 삼종 기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시작된 2016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비의 특별 희년'으로 선포하신 해입니다. 이 희년을 통해 교황님은 하느님의 본성에 마음을 기울이라고 격려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며 자비시라는 진리만큼 우리에게 크고 위로가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구원의 힘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어째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는 걸까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보시면서 정녕 하느님은 가엾이 여기시는 마음이 없으신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고통이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어떠한 죄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하심 안에서 피조물들의 고통을 함께하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악을 물리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구원의 힘과 구원의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최초의 인류가 원죄를 저지른 이래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세상의 악에 큰 힘을 주고 또 주고 있습니다. 그 힘은 재앙과 전쟁을 통해, 고통과 죽음을 통해 서로 상처 입히고 미워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그 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하느님과 갈라놓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힘이 약해지게 하여 마침내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고통, 질병,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통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이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길을 통해 고통을 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힘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통을 감수하는 순명과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구원의 참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도 축복받고 치유받을 것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느님 자비에 담긴 깊은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기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전쟁과 재난을 겪는 이들, 또한 병들고 외로우며 나이 든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큰 과제를 받았습니다. 바로 사랑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악을 이겨내라는 과제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은사의 신비로운 교환은 신성함이 다른 것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다른 해를 끼칠 수 있는 하나의 죄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품고 격려하는 사랑, 감수하는 고통, 순수함 그리고 넘치는 진리로 서슴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후원을 통해서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위로도 함께 전하고 계십니다. 이웃들은 여러분의 위로를 받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수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전하고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또 이를 통해 위로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을 드립니다.

P. Martin M. Barta

마르틴 바르타
국제ACN 지도신부

한국에 도착한 노대영 주교의 유품

일치 주간을 준비하는 1월 15일 금요일에 네빌 커크스미스(Neville Kyrke-Smith) ACN 영국지부장은 리처드 러트(Richard Rutt, 한국명 노대영) 주교의 유품을 서울대교구에 전달했습니다.

1994년에 가톨릭으로 회심하여 이듬해 가톨릭 사제 수품을 받은 리처드 러트 주교는 성장하는 한국 교회를 지지하는 의미로 그의 유품을 ACN에게 기증한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두 개의 주교 십자가와 자수정과 금으로 만든 주교 반지, 배나무로 만든 주교 지팡이, 그리고 은으로 만든 주교 성유함이 서울대교구장이자 ACN 한국지부 이사장이신 염수정 추기경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주교 십자가는 리처드 러트 주교의 조카인 피터 러트 씨가 디자인 한 것으로, 십자가에 박힌 어두운 자수정은 서울 도심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좌측부터)서울대교구 홍보국장 허영엽 신부님, 서울대교구장 및 ACN 한국지부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님, 네빌 커크스미스 ACN 영국지부장,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주원준 박사 ©PBC 남정률 기자

리차드 러트 주교님의 유품과 편지

로마에서 온 작은 성인 유해 상자가 십자가 뒷면에 모셔져 있고, 증명하는 문서도 첨부되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님은 그 보답으로 리처드 러트 주교의 저서 '한국의 순교자(-Martyrs of Korea)'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도우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커크스미스 ACN 영국지부장은 "추기경님의 축복으로 이라크, 시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를 돕기 위한 ACN 사무소가 한국에 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대의 몸짓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때 박해받았지만 이제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신자들을 돕는 한국 교회의 증인을 볼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7월 선종한 리처드 러트 주교는 1954년부터 한국에서 사목 활동을 했으며, 1966년 10월 29일 성공회 서울 성당에서 거행된 주교서품식은 최초로 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성공회 사제로서 살아온 42년 동안, 그는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위해 힘썼고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은 한국사무소 개소 이후 쏟아진 큰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ACN Korea는 보내 주신 많은 지원, 그리고 리처드 러트 주교님과 같은 ACN의 오랜 친구와 전 세계 수천 명의 새로운 친구들의 우정에 감사드립니다. 러트 주교님의 유품은 그의 유언에 따라 한때 몹시 가난하고 곤궁했던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 지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박해받던 교회가 박해받는 교회에게

150년 전 흥선대원군은 병인박해를 일으켰습니다. 잠두봉(蠶頭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했고, 그들이 흘린 피로 당시 이곳의 강물이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1984년 한국방문 당시 친히 찾으셨던 성지이자, 오늘날까지 절두산(切頭山)이라는 명칭으로 한국 천주교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ACN 한국지부 설립 과정 중, 국제ACN의 이사장이신 마우로 피아첸차(Mauro Piacenza) 추기경님과 시리아 홈스의 장-아브도 아르바흐(Jean-Abdo Arbach) 대주교님, 레바논의 아비-아자르(Abi-Azar) 신부님을 포함한 국제 대표단이 절두산을 방문하였고, 정연정 디모테오 주임신부님과 함께 이곳의 신자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중동에서 오신 성직자 두 분께서는 절두산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는 동안 격한 감정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고향의 형제자매들이 이곳에서 15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로 지금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연정 신부님께서는 2016년 병인박해 150주년을 맞아, "박해받은 교회에서 박해받는 교회에게"라는 특별한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올 2016년 한 해 동안 평일미사 때마다 중동의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함께 특별기도를 드리고, 미사봉헌금과 순례객들의 후원금을 모아 ACN을 통해 시리아와 그 외 중동지역의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의 무명 순교자들과 그 가족들을 직접 돕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병인박해 150주년을 맞아 여러분께 이곳, 추모와 기도의 성지 절두산을 방문하여 한국의 순교자들을 기억하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정연정 신부님과 절두산을 찾는 다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순교자들, 중동의 박해받는 형제자매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께서는 집에서도 기도와 ACN 후원을 통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님과 정연정 디모테오 신부님

한국 신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피아첸차 추기경님(우), 아르바흐 대주교님(좌)

아프리카의 봉헌생활

어려움에 함께 힘을 주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신학생 시절처럼
한자리에 다시 모인 형제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자비를 일컬어 "다른 이들이 겪는 어려운 처지에 마음 깊이 느끼는 연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단지 진심으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자비의 정신을 계승하셨습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Kampala)의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는 사목 활동을 통해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곤궁함과 위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제들에게도 이는 예외가 아닙니다. 수도원에서는 ACN에 도움을 요청하며 여러 어려움을 하나하나 설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만 하고, 다른 이들만을 돌보는 이는 언젠가 감정과 영성이 소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제에게는 기도와 고요함이 함께 필요합니다. 항상 일에 파묻혀 활동하는 이는 자기 발전에 신경을 쓸 수가 없고 사목 활동을 다만 일상적인 일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적, 종교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30세 이상의 사제들, 곧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기술 혁명 이전에 공부한 이들은 IT 문맹으로 시대에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는 사제들이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배움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활기를 찾도록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나이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말입니다. 수도회는 신학교를 졸업한지 25년이 된 사제들을 위해 '동기 모임'을 열 예정입니다. 사제들은 함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교황님께서 최근 내신 문헌들에 관해 강의를 들을 것입니다. 사제들은 이곳에서 함께 과제를 하고, 기도 모임도 참석할 것입니다. 지치고 어려울 때 지지와 조언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사제들은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 낸다면 본당에서 신자들을 돌보는 사목 활동을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아채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활동입니다. ACN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수도회들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려 합니다. 물론 우간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도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분들에게 교육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콩코 공화국, 부템비(Butembi)의 '평화의 모후(Regina Paci)' 신학교에는 지원자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마르 8,4)

이곳 신학생들은 "자신의 빵을 스스로 구하는 일"을 걱정합니다. 신학생들은 양배추와 당근, 감자, 바나나, 콩, 면화 등을 손수 키우며, 염소와 양을 기르고 젖을 짭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입니다. 이것이 이곳 신학생 67명과 교수진들의 일상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려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양떼를 돌보는 데 목동 2명이 필요하고 때때로 수의사에게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씨앗을 구해야 하고 관개시설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신학생들은 이를 통해 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부단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말 그대로 이 비옥한 땅에 뿌려질 것입니다.

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은 무척 많습니다. 현재 주교님과 수도원장님은 신학교의 시설을 더 늘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모두 신학교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식당에도 교실에도 자리가 모자랍니다. 신학교를 확장한다면 무엇보다 미래에 공동체들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ACN은 이 신학교의 미래를 위해 1만 5천 유로(약 2천만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신학생들은 저마다 맡은 일이 있습니다.
양배추 농사를 담당하는 요셉 학사님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 혹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과

하느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5년 전 가톨릭 사제의 학대 사건이 불거진 이후로 신학교 입학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사제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균형은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사제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신학생의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ACN은 전 세계 1만 명에 달하는 신학생들을 지원합니다. 매달 신학생들로부터 '감사' 의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들이 ACN 앞으로 도착합니다.

신학교라는 못자리에서
신학생들은 학업, 기도, 소명에 마음을 쏟습니다.

페루 유리마구아스(Yurimaguas)의 고베르 차베스(Gover Chavez) 학사님은 '세상의 어려움'과 자신의 나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식과 지혜로 스스로 자신의 소명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신학교에 다니는 훌리오 세사르(Julio Cesar)학사님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우리는 소명에 충실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목자가 되어 교회에 이바지함으로써 이를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고 격려받습니다." 고베르, 훌리오, 엔리케, 후안 학사님 등 모든 신학생들이 저마다 품은 희망은 비슷합니다. 그들은 훗날 서품을 받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고자 합니다. "성체의 영적인 힘은 마치 빛과 같습니다. 빛이 되고자 하는 이는 이를 분명하게 받아들입니다." 페루에서 매우 가난한 교구에 속하는 이곳 유리마구아스에는 신학생 26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제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며 정진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지지를 전달하며 7천2백 유로(약 9백5십만 원)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그들의 부르심을 더욱 굳세어질 것입니다.

콜롬비아 라세하(La Ceja)의 '사제이신 그리스도(Cristo Sacerdote) 신학교'에도 신학생 172명이 재학 중인데, 27개의 교구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들이 좋은 목자와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ACN은 이 신학교에도 2만 1천5백 유로(한화 약 2천8백5십만 원)를 지원하였습니다.

부르심의 길

이들은 엄격하고 높은 기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리오(Dario) 학사님은 어린아이일 때부터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카푸친 수도회 신부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깊이 감동을 받아 바로 이것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신부님조차 다리오 학사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32세가 된 지금 그는 다시 신학교로 돌아왔고, 매우 기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쁜 소명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저의 소명 의식을 더욱 북돋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항상 후원자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레이날도(Reinaldo) 학사님은 다른 길을 찾으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본당 신부님께서 그분의 삶으로 증거한 소명의 씨앗이 가슴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학사님은 직업적으로 여러 일을 하며 성공을 거두었지만 마침내는 신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오스카 알리리오(Oscar Alirio) 학사님은 "저는 하느님께서 부드럽게 저를 부르신 그 첫날부터 지금껏 저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학생들도 각자의 길을 통해 신학교로 왔습니다. 172명 모두 저마다 부르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생 숙소는 깨끗이 정리되긴 하였지만, 17명이 함께 머물기에는 매우 협소합니다.

미래의 사제들은 부활의 증거와도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에는 관리인이나 행정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사람들을 함께 이끌 수 있는 형제이자 아버지를 양성해야 합니다."

스리랑카 자프나(Jaffna)의 프란치스코 신학교 학장님께서 깊이 숙고하신 후 연말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학장님은 보고서에서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목자를 양성하는 일은 학장님께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신학교에는 철학과 교회법뿐만 아니라 교의 신학 등 신학 수업이 여럿 개설되어 교육 중입니다. 25년간 이어진 스리랑카 내전이 종식된 지금, 스리랑카 국민들에게는 단죄하는 손가락질보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따뜻한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사랑과 말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할 때에만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프나의 신학교는 설립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종종 신학생들은 전쟁으로 인해 책 몇 권과 가재도구 약간을 지닌 채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신학교에서 모두 총 125명의 사제가 배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34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가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신학생들은 큰 강당 두 곳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러나 사제 서품을 앞둔 이들은 적어도 개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학장님은 "만약 삶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가슴 깊이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교황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 오롯이 마음을 모으려면 각자의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신학교에는 이런 공간을 마련할 자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신학생 기숙사'가 새로 필요합니다. ACN은 1십만 6천5백 유로(약 1억 4천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래의 성직자로서 그들은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관계를 깊어지게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사제들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교회를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착한 목자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

신학생들이 말씀만으로 생계를 꾸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먹고 마실 것, 잠잘 곳이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다른 신학교 사정도 비슷합니다. 신학생에게는 적어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 15년간 많은 사제를 배출한 파키스탄 라호르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co de Xavier) 신학교에도 시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의 신학생은 다른 여러 수도원에서 모인 18명을 포함하여 92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목자로서 사목 활동을 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 신학교의 공간은 이미 매우 협소합니다. 식당에는 식탁 4개, 의자 25개가 부족하고 교실에도 그 정도의 의자가 더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침대 40여 개도 부족합니다. 건축 자재는 담당 교구와 신학교에서 마련했지만, 가구를 살 돈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가 계속될 수 있도록 9천 유로(약 1천2백만 원)를 약속하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오늘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이들, 바로 파키스탄의 미래의 사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채워 줄 사랑의 오아시스를 짓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뿐입니다."

눈먼 이들, 가난한 이들, 한센병 환자들은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이는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는 것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바로 당신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입으로 말할 뿐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말입니다.

카메룬의 프란치스코 임마누엘 공동체 소속 데니스-안토이네(Denis-Antoine) 신부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22명의 수도회 소속 형제들과 전국 5개의 교구에서 모인 평신도 95명이 모두 이 말씀을 새기고 이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들은 한센병 환자들, 시각 장애인들, 재소자들, 또한 가정의 청소년들을 방문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저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또한 그리스도를 보며, 기쁨을 봅니다." 15년 전에 데니스-안토이네 신부님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조국인 캐나다를 떠나 이곳 은콩삼바(Nkongsamba) 교구에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널리 퍼지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일은 교황님의 말씀하신 자비의 영적 활동에 속합니다.

당시의 이곳 주교님께 그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주교님은 공동체에 영성 기관을 한 곳 설립하여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수품을 앞둔 신학생들이 내적으로 수련하며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사제들이 몇 년간 힘든 사목 활동을 하고 나서 찾아와 지친 마음을 달래고 다시 힘을 얻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는 것들을 나눌 뿐입니다." 드외도네 에스뿌아 아탕가나(Dieudonné Espoir Atangana) 현 주교님은 '성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사제와 주교들을 위한 영적 새로움이 샘솟는 모습을 보십니다. 이 회관은 비단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제들은 많이 지쳐 있고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충전은 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제 이곳은 더욱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축이 시급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미사와 교리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당과 공공화장실도 새로 지어야 하고, 공동 주방도 새로 필요합니다. 아마도 현대식과 전통식을 접목한 주방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후원자들을 모집했지만 아직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ACN은 15만 유로(약 2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근 나라의 주교회의에서도 사목자가 자기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이곳을 이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직자들은 때때로 며칠 동안 조용히 지내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다시금 이해하고 알아차려야 하지요." '성 프란치스코 회관'은 그런 의미에서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카메룬 북부는 무슬림 장악 지역이고, 남부는 복음주의 이단이나 미신 신앙이 강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 기관은 사랑에 힘을 실어다 줍니다. 이는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서로 사랑하며, 우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멀리멀리 퍼집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 수 있겠습니까?"

동티모르에서 새로 나온 어린이 성경

《마라막 코알리아 다바 니아 오안 시라》(Maromak koalia ba nia oan sira)는 ACN 어린이 성경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시다》의 동티모르 판입니다. 이 책은 같은 제목으로 한국에서도 출판되었습니다. 살레시오 수도회는 초등학교 50곳에 이 어린이 성경을 나누어 주었고, 학교 수업자료로 알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립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이 작은 성경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살레시오회 원장이신 조아오 파울리노 아파리시오 구테레스(Joao Paulino Aparicio Guterres) 신부님도 행복해하십니다. 신부님은 여러분께 모든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작은 비석 위에 떨어지는 눈물

얼마 전 우리 딸아이가 수술을 받고서,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하늘나라에 봉헌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딸 잔느의 장례식으로 모인 돈에 대해 조언을 구하자,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추천해 주었어요. 저희 딸아이도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에서

영원히 기억될 선물

오래전부터 저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싶었는데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러던 차에 결혼식을 앞두고 마드리드의 ACN 지부에 전화해서 저의 소망과 결혼식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덕분에 쉬우면서도 영적인 힘을 실어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식 손님들 이름 앞으로 미사를 한 대씩 봉헌하였고, 그 봉헌금으로 박해받는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모두 미사 100대를 봉헌했는데, 동시에 손님들에게 이에 관한 안내카드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손님들도 영원히 기억될 선물이라며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기쁜 날을 뜻깊게 기념하기에 좋은 방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새 신부가

중동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생으로 올해 스물한 살입니다. 이틀 동안 아이를 돌보고 번 돈으로 오늘 생애 처음으로 후원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격려해 주셨어요. 기도 중에 중동 지역의 그리스도교 형제들과 함께할게요.

프랑스에서 한 대학생이

아이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합시다.

저는 얼마 전 성경 속 하느님 말씀에 담긴 뜻과 힘이 어린 시절부터 저와 함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참으로 놀라웠지요. 저의 어린 시절이 달랐더라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는 일에 쓰이도록 여기 50달러를 보냅니다.

호주에서 후원자

요하네스 헤르만
폰 쥐트뷔크

ACN International
대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년 전, 저는 여러분께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우리를 대표하는 통일된 이미지를 찾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분열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IT의 성장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된 이름을 가진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를 더욱 분명하게 알리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통일된 이름을 찾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안이 무려 60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각 나라에서 이미 오랫동안 사용한 이름을 바꾼다면 너무 큰 모험이 되리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각국 지부의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크게 신뢰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부의 이름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속력 강화를 위해 공통적으로 ACN이라는 약자를 추가로 사용하고 로고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작업의 첫걸음으로 독일 쾨니히슈타인에 위치한 국제 본부의 '키르헤 인 노트(Kirche in Not)'라는 독일 이름이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Aid to the Church in Need, ACN'라는 영어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전 세계 각 지부간 일치를 향해 한 발자국을 내디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두 여러분의 신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AID TO THE CHURCH IN NEED
교황청 국제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www.churchinneed.or.kr | 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 post.naver.com/churchinneed

전화: 02)796-6440 | **팩스:** 02)796-6439 | **문의:** info@churchinneed.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67 대승빌딩 8층 우(04111) |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본 뉴스레터의 일부는 한겨레결체로 제작되었습니다.